

보도시점 2023. 7. 13.(목) 조간 배포 2023. 7. 12.(수) 09:00

## 2023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- '23.6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+3.5조원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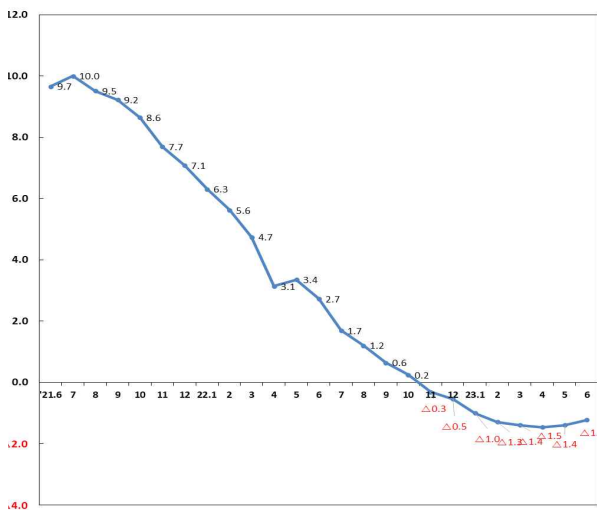
\* 증감액(조원) : ('22.12월)△3.4 ('23.1월)△8.1 (2월)△5.1 (3월)△5.1 (4월)+0.2 (5월)+28 **(6월)+3.5**

- 향후 주담대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,  
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

'23.6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+ 3.5조원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전년 동월 대비로는 △1.2% 감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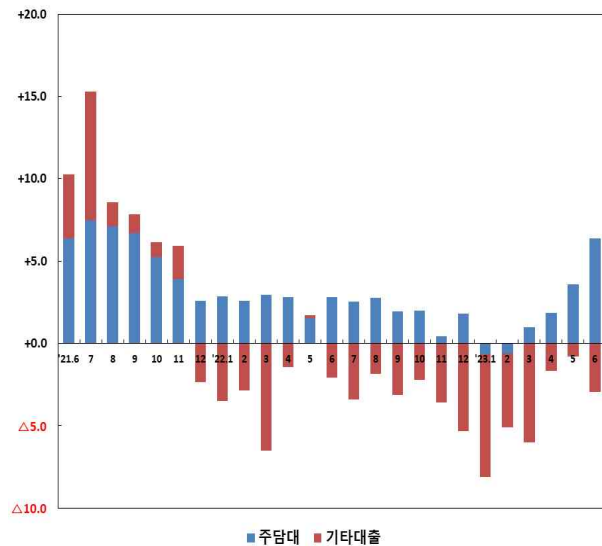
가계대출 증가율

(전년 동월 대비, 단위: %)



소금융권 주담대·기타대출 증감률 추이

(전월 대비, 단위: %)



대출항목별로 살펴보면,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4개월째 확대되고 있으나 기타대출 감소폭은 확대되었다.

주택담보대출의 경우,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(△0.6조원)이 감소하였으나, 은행권 주택담보대출(+ 7.0조원) 증가 영향으로 총 + 6.4조원 증가하였다. 기타대출은 은행권(△1.1조원)·제2금융권(△1.8조원) 모두 감소하여 총 △2.9조원 감소하였다.

###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

(단위 : 조원)	'22.12월	'23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 <sup>P</sup>
주담대	+1.8	△0.6	△0.6	+1.0	+1.8	+3.6	+6.4
기타대출	△5.3	△7.5	△4.5	△6.0	△1.7	△0.8	△2.9

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하였으며,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하였다.

'23.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+5.9조원 증가하여,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.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일반개별주담대(+3.7조원)·정책모기지(+2.6조원)·전세대출(+0.1조원)·집단대출(+0.7조원) 영향으로 총 +7.0조원 증가하였다. 기타대출은 신용대출(△0.9조원) 영향 등으로 총 △1.1조원 감소하였다.

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(5월 +4.2조원→6월 +7.0조원)는 실수요자 위주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\*, 일부 선호입지 중심의 주택거래량 회복\*\*으로 인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이유도 다소 있으나,

\* '23년 중 은행권 정책모기지 증감액(조원) : (3월) +7.5 (4월) +4.7 (5월) +2.8 (6월<sup>P</sup>) +2.6

\*\* 거래량(만건) : <수도권> (1월) 1.0 → (6월<sup>e</sup>) 2.4 <지방> (1월) 1.5 → (6월<sup>e</sup>) 2.9

주택거래량이 아직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\*('23.3월)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·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이외\*\* 목적의 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감안 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.

\* 투기·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(2억원),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(2억원) 등 각종 제한 일괄 폐지

\*\*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용도별 신규취급액(조원)

- 주택구입 목적 : (1월) +6.0 (2월) +6.3 (3월) +8.1 (4월) +6.7 (5월) +7.2 (6월<sup>P</sup>) +9.1

- 주택구입외 목적 : (1월) +4.7 (2월) +4.8 (3월) +8.5 (4월) +7.0 (5월) +7.8 (6월<sup>P</sup>) +8.0

제2금융권의 경우, 보험(+0.1조원)은 소폭 증가하였으나, 상호금융(△1.8조원)·저축은행(△0.1조원)·여전사(△0.7조원) 위주로 △2.4조원 감소하였다. 제2금융권 감소폭이 다시 확대된 것은 상호금융 비주담대 감소(△1.2조원), 여전사 가계대출의 감소세 전환(+0.3조원→△0.7조원)이 주요 요인이다.

###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

(단위: 조 원)	'21년중 (1~12월)	5월	6월	'22년중 (1~12월)	5월	6월	'23년중 <sup>P</sup> (1~6월)	5월	6월 <sup>P</sup>
은 행	+71.6	△1.4	+6.3	△2.8	+0.3	+0.2	+4.4	+4.2	+5.9
제2금융권	+35.9	△0.2	+3.9	△6.0	+1.4	+0.5	△16.3	△1.4	△2.4
상호금융	+19.5	△0.8	+2.4	△10.6	△0.6	+0.2	△16.0	△2.1	△1.8
신 협	+1.9	△0.2	+0.1	+0.1	△0.0	+0.1	△1.9	△0.3	△0.2
농 협	+11.3	+0.1	+2.0	△11.1	△0.6	△0.3	△9.4	△1.1	△1.0
수 협	+0.9	+0.0	+0.1	△0.5	△0.0	+0.0	△0.7	△0.1	△0.1
산 림	+0.5	+0.0	+0.1	△0.1	△0.0	△0.0	△0.3	△0.0	△0.1
새마을금고	+5.0	△0.7	+0.2	+1.2	+0.1	+0.4	△3.7	△0.5	△0.5
보 험	+5.4	△1.3	+0.4	+3.6	+0.3	+0.1	+1.4	+0.4	+0.1
저축은행	+6.3	+0.5	+0.9	+2.3	+0.6	+0.4	△0.3	△0.0	△0.1
여 전 사	+4.7	+1.4	+0.2	△1.3	+1.0	△0.3	△1.3	+0.3	△0.7
소금융권합계	+107.5	△1.7	+10.3	△8.8	+1.7	+0.7	△11.9	+2.8	+3.5

금융당국은 '23.6월 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총 +3.5조원 증가하였으며,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, 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팀 장	김태훈	(02-2100-1690)
<총괄>	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	담당자	사무관	송병민	(02-2100-1692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강영수	(02-2100-2950)
	은행과	담당자	서기관	정태호	(02-2100-2951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신상훈	(02-2100-2960)
	보험과	담당자	사무관	박성진	(02-2100-2967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오화세	(02-2100-2990)
	중소금융과	담당자	사무관	권나림	(02-2100-2991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(공 석)	(02-3145-8020)
	은행감독국	담당자	팀 장	안신원	(02-3145-8040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문형진	(02-3145-7460)
	보험감독국	담당자	팀 장	이권홍	(02-3145-7455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길성	(02-3145-6770)
	저축은행감독국	담당자	팀 장	이희성	(02-3145-6773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종오	(02-3145-7550)
	여신금융감독국	담당자	팀 장	이성희	(02-3145-7552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정미선	(02-3145-8070)
	상호금융국	담당자	팀 장	이동원	(02-3145-8083)